

상담자-내담자 상호작용과 상담 협력관계 (Working Alliance)

김 계 현
서울대 교육학과

상담시간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공동의 합의된 목표를 위해서 협조적으로 일하는 관계로 정의되는 '상담 협력관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지 분석해본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 이런 동일 주제를 탐구한 국내 4개 연구를 개관해 보고 그들로부터 일관성있는 결과가 발견되는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검토된 4개의 연구는 방기연(1991), 김선경(1992), 김동민(1993), 김지은(1994)의 석사학위 논문인데 모두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의 상담사례를 자료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4개의 연구를 개관, 분석해본 결과, 크게 두가지 면에서 일관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우호적이고 몰입적인 상호작용 패턴이 그들의 협력관계 지각과 깊이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관계의 방향성을 보면, 우호적이고 몰입적인 상호작용이 협력관계를 올려준다기 보다는 적대적이고 비몰입적인 상호작용이 협력관계를 낮춘다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힘'의 관계 패턴도 상담 협력관계의 지각과 관련이 있었다. 상담자가 강한 힘으로 이끌고 내담자는 상대적으로 약한 힘으로 순응하는 상보적 관계 패턴일 때 상담 협력관계를 높게 지각하며, 상담자보다 내담자가 힘이 강하거나 혹은 내담자도 상담자의 힘에 비등가는 같은(대칭적) 힘으로 대처했을 때에는 상담 협력관계를 낮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상담시간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공동 목표를 위해서 협조적으로 일하는 관계, 즉 working alliance는 국내에서 특히 서울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는 변인으로 보인다. 비록 working alliance(WA)에 대한 번역이 작업동맹(김동민, 1993; 김지은, 1994; 방기연, 1991), 협조관계(김선경, 1992), 상담 협력관계(강혜영, 1995) 등 통일이 되어있지 않지만 이들은 모두 Bordin의 working alliance 개념을 빌어다 쓰고 있으며 측정방법

으로는 Horvath와 Greenberg(1986, 1989)의 working Alliance Inventory 즉, WAI를 사용하고 있다. (Working alliance에 대한 번역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 협력관계'라는 말을 채택한다. 단, 약자로 사용할 때는 'WA'라고 할 것이다.)

상담 협력관계 즉, WA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흥미롭게도 매우 유사한 주제를 탐구하고 있다. 그들이 탐구하는 공통적인 주제는 상담의 과정 즉 process가 WA와 관련이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에서 사용한 말(언어)의 내용이나 유형이 WA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일어난 상호작용의 유형이 WA와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주제가 주요 탐구문제로 떠오른 배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 협력관계'에 관한 최초의 주요 주제는 그것이 상담성과를 예언할 수 있는가 였다. 즉,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초기에 형성한 협력관계는 추후에 그 상담의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Horvath와 Greenberg(1989)의 보고에 의하면 그들이 개발한 WAI는 상담성과의 좋은 예언지표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보고에 더해 볼 때 협력관계에 대한 다음 주제로 떠오르는 것은 그런 상담 협력관계가 상담초기의 무엇 때문에 형성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상담초기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행한 '언어 상호작용'이 그들간의 협력관계 형성과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가설을 검토하는 일이 가장 먼저 시도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최근 4년동안에 나온 네 편의 논문을 종합, 분석한다. 그들을 시간 순서대로 열거하면, 방기연(1991), 김선경(1992), 김동민(1993), 그리고 김지은(1994)의 연구인데 이들은 모두 석사학위논문이다. 방기연과 김지은의 지도교수는 이장호 교수이었으며, 김선경과 김동민의 지도교수는 필자 자신이었다.

WAI를 주 측정도구로 사용한 연구가 국내에 몇개 더 있으나 이들 네개 연구만을 분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들 네 연구는 거의 유사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즉, 상담과정(상담자-내담자 상호작용)이 상담 협력관계 형성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처

럼 유사 주제의 네 연구가 한가지 측정도구를 사용한 경우가 흔치않다. 이때 이 네 연구를 개 관해보는 것은 그 측정도구(WAI)가 측정하는 구인의 성격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측정도구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네 연구는 다같이 Horvath와 Greenberg의 논문(1989)에 실린 WAI 문항을 사용하고 있다. 내담자용 질문지는 그들의 논문에 실린 문항들을 그대로 번역했으며, 상담자용은 내담자용 문항을 토대로 제작한 것이다.

윤경자(1993)와 강혜영(1995)의 연구에서도 WA를 연구하고 WAI를 사용했지만 그들은 상담자의 경력수준을 주요변인으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이들 네 연구와는 맥을 달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에 열거한 네 연구만을 개 관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상담과정 즉 상담 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교환한 언어 즉 그들간의 언어 상호작용이 WA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 네개의 연구를 개관하고 그 결과들의 일관성과 차이점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전자(상담 상호작용)가 후자(협력관계)를 예언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주 목적이다. 동일 패러다임을 사용한 네개 연구를 종합, 분석함으로써 이들간에 공통적인 즉 일관성있는 발견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다.

동일 패러다임을 사용한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발견하는 것은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이는 중요한 작업이다. 어느 한 연구의 결과는 그것이 우연히 얻어졌을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그런 가능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적절한 연구설계와 통계적 검증을 시도하지만, 상담과정 연구는 몇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그런 내,외적 타당도에의 위협요인

을 충실히 배제하지 못한다. 그 가장 중요한 요인 두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과정연구에서는 통제된 실험설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담과정연구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를 통제하지 않고 자연상태 그대로 관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WA의 고저(高低)가 상담과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다른 우연한 혹은 체계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구명하지 못한다. 그런 결과가 우연히 얻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나, 비실험연구설계가 실험연구설계의 장점을 완전히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장치를 통해서 비실험연구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그 방법 중의 하나는 동일 변인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의 측정을 적용하여 반복연구를 하는 것이다. 동일 변인에 대해서 다양한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연구의 구인타당도를 향상시킨다. 그리고 반복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얻을 때 그 결과가 우연히 얻어졌을 가능성을 그만큼 줄여 주어서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향상시킨다. 즉, 바로 그 변인이 WA를 예언하는 변인임을 주장하는 근거를 더 얻게되는 셈이다. 유사주제를 동일 설계 패러다임으로 분석한 네개의 연구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그 연구결과가 매우 타당성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공고히 해준다.

둘째, 상담과정연구에서의 피험자 선발과정은 잘 가정된 전집으로부터 피험자를 무선(無選)으로 표집하는 과정이 아니다. 대개의 연구자는 한개의 기관 혹은 몇개의 상담기관에 연구협조를 부탁하고 그 중 특히 협조적인 상담자들로부터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런 조건은 연구결과와 일반화범위를 명백히 제한시킨다. 심하게 말하면 연

구에 사용된 바로 그 사례들의 경우에만 국한해서 '일반화'를 제한해야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피험자를 사용한 여러 연구들이 유사한, 일관성있는 결과를 얻었을 때 그 일반화 범위는 그만큼 커진다.

상담 협력관계의 측정: WAI

네 개의 국내연구를 개관하기에 앞서 상담 협력관계의 한 측정도구인 Working Alliance Inventory 즉 WAI를 개관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네 개의 연구가 한결같이 WAI를 상담 협력관계의 측정방법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네개의 연구는 모두 Horvath와 Greenberg(1989)의 척도를 사용했다. 이 WAI(1989)는 36개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12문항씩 3개의 하위 척도가 있다. 각 하위척도 이름은 '유대' (Bond), '목표합의' (Agreement on goals: Goal), '과제동의' (Agreement on tasks: Task)이다.

이 세 요인은 Bordin(1979)의 주장에 근거한다. Bordin은 정신분석학적 개념인 working alliance 개념이 다른 심리치료/상담 이론 즉 행동치료, 내담자중심치료, 게슈탈트 치료 등에도 적용됨을 논의한 바 있다. 지면관계로 WAI의 개발과정이나 신뢰도, 타당도 자료를 개관하는 것은 생략하며, 여기서는 WAI의 각 하위척도 '정의'를 요약하는데 그친다.

'유대'라는 개념은 예컨대 상호 신뢰, 상호 수용, 상호 확신감 등과 같이 긍정적이며 인간적인 유대감을 상담자와 내담자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합의'는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에 대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 합의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제'란

상담시간 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행하고 생각하는 내용을 지칭하는데, '과제동의'란 상담자와 내담자가 다같이 어떤 상담내 활동 즉 상담과제가 상담목표 달성에 적합하고 효율적인지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대인관계에서는 과제수행에 대한 각자의 책임이 잘 수용되고 있다(Horvath & Greenberg, 1989). WAI에는 내담자용과 상담자용이 있다.

연구 I (방기연, 1991)

연구자는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열 개의 상담사례를 수집하였다. 각 사례에서 초기 1-4회기를 수집하여 총 40회기의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었는데 결국 32회기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고 그 중 녹음이 된 회기는 21개 회기였다. 각 회기 말에는 WAI와 SEQ(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회기평가질문지)를 실시하였다. WAI와 SEQ는 내담자에게만 실시되었다.

녹음된 21개 회기의 상담과정은 '축어록' 즉 transcripts로 풀어져서 Hill(1978)의 상담자 언어반응 유목체계로 유목분류되었다. 평정은 3인의 훈련된 평정자가 하였는데 세 평정자간의 일치도가 제시되었다(.76 ~ .95). 이런 절차는 이후에 소개되는 다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Hill의 상담자 언어반응 유목체계에는 14개의 유목이 있다. 그들은 가벼운 격려(Minimal Encourage), 침묵(Silence), 시인/안심(Approval/Assurance), 정보(Information), 직접적 지시(Direct Guidance), 한정질문(Closed Question), 개방질문(Open Question), 재언급(Restatement), 반영(Reflection), 해석(Interpretation), 직면(Confrontation), 비언어적 행동 지적(Nonverbal Referent), 자기노출(Self-Disclosure), 기타(Other)이다.

연구자는 상담자가 상담 내에서 행한 언어반응의 빈도와 WAI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표 1, 표 2). 자료제시는 1,2회기(전반)와 3,4회기(후반)를 구분해서 하였는데, 전반과 후반에

표 1. 전반기(1, 2회기) 상담 협력관계와 상담자 언어반응 간의 상관 (n=9)

	상담 협력관계(총점)	유대	목표	과제
가벼운 격려	-.56	-.32	-.57	-.65*
침묵	.78**	.74*	.80**	.64*
시인/안심	.28	.09	.46	.23
정보	.45	.52	.42	.34
직접적 지시	.48	.59*	.41	.35
한정질문	.14	-.19	.16	.38
개방질문	.51	.15	.53	.71*
재언급	.26	-.02	.31	.41
반영	.18	.24	.12	.14
해석	.54	.39	.67*	.43
직면	.16	.09	.19	.16
비언어적 행동지적	-.18	-.46	-.20	.13
자기노출	.29	.00	.45	.32
기타	.17	.08	.16	.21

* p<.05 ** p<.01

표 2. 후반기(3, 4회기) 상담 협력관계와 상담자 언어반응 간의 상관 (n=12)

	상담 협력관계(총점)	유대	목표	과제
가벼운 격려	-.16	-.06	-.09	-.31*
침묵	-.23	-.12	-.24	-.34
시인/안심	-.10	-.13	-.13	.01
정보	.46	.34	.38	.59*
직접적 지시	.93**	.79**	.91***	.90***
한정질문	.19	.04	.24	.35
개방질문	.52*	.37	.46	.63*
재언급	.04	.01	-.00	.13
반영	-.43	-.32	-.45	-.44
해석	-.37	-.39	-.38	-.20
직면	.04	.01	-.03	.13
비언어적 행동지적	-.28	-.25	-.34	-.18
자기노출	-.42	-.36	-.51*	-.28
기타	-.08	-.11	-.05	-.05

* p<.05 ** p<.01

서 다소 다른 결과를 얻었다. 전반기에서는 상담자의 '침묵'이 WAI 총점, 그리고 각 하위 척도와 유의있게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에, 후반기에서는 상담자 '침묵'과 WAI와의 상관이 사라졌다. 반면에 후반기에는 '직접적 지시'가 WAI 총점 및 각 하위 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가벼운 격려'는 전반기에서 '과제동의' 척도와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후반기에는 그 상관의 정도가 감소했다. '개방질문'은 전후반기에 걸쳐서 '과제동의'와 상관이 있었고, 후반기에는 WAI '총점'과도 상관이 있었다. 상담자의 '자기노출'은 후반기에 '목표합의'와 역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상담자 행동은 상담협조관계와 유의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연구 II (김선경, 1992)

김선경의 연구가 방기연의 것과 다른 점은 (1)WAI를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에게 실시한 점, (2)Bales(1970)의 언어반응 유목을 사용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의 행동(말)을 측정한 점,

(3)연계분석법(sequential analysis)를 사용하여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한 점 등이다.

김선경은 Horvath와 Greenberg의 1989년 논문에 수록된 내담자용 WAI를 기초로 먼저 내담자용 질문지를 만들었다. 내담자용은 방기연이 먼저 만들어서 사용한 바 있는데, 김선경은 36개 문항중 23개를 소폭 수정하였다. (상담자용 질문지는 내담자용 문항을 토대로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WAI의 원본 상담자용 질문지는 김선경이 내담자용을 보고 만든 것과 14개 문항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새로운 상담자용 WAI는 이호준과 필자가 원본을 보고 새로 번역하였는데 그것은 강혜영의 석사학위논문(1995) 부록에 실려있다. 앞으로는 이 새로운 상담자용 WAI를 사용해야할 것이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ales의 언어반응 유목체계 즉 Counselor-Client Verbal Response Category System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12

표 3. Bales 언어반응 유목

A. 긍정적 반응

1. 결속 표현(SO: Solidarity): 추켜세우기, 도움주기, 칭찬, 격려, 은정과 동정 표현 등.
2. 긴장이완 표시(TR: Tension Release): 농담, 웃기 등.
3. 동의 '(AG: Agree): 수용, 이해, 동조, 관용적 반응 등.

B. 중립적 반응

4. 구체적인 방법제공(SU: Suggestion): 행동방향 제안, 역할연습, 상담관계 정의 등.
5. 의견제시(OP: Opinion): 평가, 분석, 해석, 추론, 느낌이나 바램의 표현.
6. 오리엔테이션 제공(OR: Orientation): 정보제공, 반복, 명료화, 반영 등.
7. 오리엔테이션 요구(AR: Ask for Orientation): 정보요구, 확인요구, 사실적 질문 불명확성 및 정보부족에 대한 표시.
8. 의견 요구(AO: Ask for Opinion): 평가와 분석 요구, 느낌 표현 요구 의견 및 감정을 부연하도록 요구하거나 탐색하기.
9. 구체적 방법 요구(AS: Ask for Suggestion): 구체적 행동방안 요구.

C. 부정적 반응

10. 반대하기(DA: Disagree): 소극적 거절과 거부, 냉담, 감정철회, 불신표시 요약과 불평의 무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등.
11. 긴장(TE: Tension): 주저하기, 자기비난, 낙담, 상담장면 밖으로 철회, 도움 청함.
12. 적대(AN: Antagonism): 상대방을 깎아내림, 자기방어, 자기주장, 거절, 호전적 태도.

출처: 김선경(1992), p. 36-38

개의 상호독립적인 유목으로 되어있다. 그들은 3개의 '긍정적 언어반응', 6개의 '중립적 언어반응', 그리고 3개의 '부정적 언어반응'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유목의 이름과 간단한 정의는 표 3에 제시되어있다.

연구자는 1991년 12월에서 92년 4월 사이에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서 행해진 상담사례 중에서 17사례, 45회기를 표집하였다. 각 사례의 1,2,3 회기가 녹음되었으며, 3회기 직후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따로 WAI를 실시했다.

이 연구의 기본 설계는 사후분석 즉 ex post facto 설계(Heppner, Kivlighan, & Wampold, 1992)의 변형으로서, 17사례중 WAI점수가 가장 높은 사례 2개와 가장 낮은

사례 2개를 선발하여 비교분석하는 방식을 취했다. 상담 협력관계의 측정은 다(多)관점에 의한 측정으로서,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 협력관계, 상담자가 지각한 상담 협력관계가 측정되고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은 '과제동의'나 '목표합의'가 높은 사례에서는 상담과정 중 '동의'를 나타내는 반응이 빈도가 높게 나오거나 '동의'와 연관된 연계적 상호작용패턴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다. 그리고, '유대'가 높은 사례는 상담과정 중에 부정적 과정이 적은 대신에 긍정적 과정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주로 관심 있게 분석되었다. 결과분석 자료제시는 복잡하게 이루어졌지만 주요 발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목표합의' 및 '과제동의'에서 최상위 2사례와 최하위 2사례를 비교하면, 高협력관계 사례들은 低협력관계 사례들보다 내담자가 상담중에 '동의' (Agree) 반응을 더 자주 했다. (정확히 표현하면, 내담자의 전체 반응 중 '동의'가 차지하는 비율(기본율, base rate)이 높다) 내담자가 지각한 '목표합의'와 '과제동의'가 최상인 두 사례와 최하인 두 사례를 비교해 본 결과 기본율 평균이 .17 대 .07이고 상담자가 지각한 점수에서 최상과 최하 사례들을 비교한 결과 기본율 평균이 .12 대 .05로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자의 '동의' 반응에는 사례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 결과는 상담자나 내담자나 공히 상담자의 '동의' 반응보다는 내담자의 '동의' 반응이 많이 나온 사례에 대해서 그들이 상담목표나 상담과제에 더 합의(동의)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각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협력관계의 지각은 주로 상담자의 동의반응보다는 내담자의 동의반응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동의'가 후속반응이 되는 연계패턴을 조사해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있다. '동의'가 후속하는 연계패턴이란 예컨대 상담자의 '의견제시'에 대해서 내담자가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자는 이런 연계패턴이 강하게 형성된 사례에서 높은 점수의 '과제동의'나 '목표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한 바 있다. 표 4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한 협력관계(과제동의와 목표합의)가 높은 두 사례와 낮은 두 사례를 비교한 것이다. 상담자의 점수가 가장 높은 두 사례, 내담자의 점수가 가장 높은 두 사례를 선발했는데 각각 한 사례씩은 중복이 되어서 제시되기는 세 사례씩 제시된다.

여기서 Kappa는 어떤 반응이 선행한 다음에

표 4. '동의' 반응이 후속하는 연계의 카파값(Kappa)
(상담자와 내담자의 '과제동의'와 '목표합의' 점수를 기준으로)

응답자	상 위									하 위								
	상담자			상담자/내담자			내담자			상담자			상담자/내담자			내담자		
연계패턴	사례2			사례11			사례8			사례9			사례16			사례12		
회 기	1	2	3	1	2	1	2	3	1	2	3	1	3	1	2	3		
상SU:내AG	.20	.02	.10*	.63**	.17	.04	1.0**	.04	-1.0	-1.0	-1.0	-1.0	-.29	-1.0	-1.0	-1.0		
상OP:내AG	.14**	.27**	.07	.53**	-.30	.27**	.27**	.24**	-1.0	.10**	.15**	.21**	.05	.42**	.38**	.12		
상OR:내AG	.32**	.17**	.49**	.13	-.02	.55**	.30**	.34**	.13**	0.0	.18**	.04	.14*	.43**	.39**	-1.0		
내OR:상AG	.41	.19	.52	.30**	.41*	0.0	.07	-.08	-1.0	0.0	.67**	.05	-.02	0.0	-1.0	.50		
내OP:상AG	-.33	.14	-.37	-1.0	-1.0	-.53	.01	.07	-1.0	.10**	.15**	.03	.27**	.10	.23*	-1.0		

SU(Suggestion): 제안 OP(Opinion): 의견 OR(Orientation): 정보제공 Ag(Agree): 동의
*p < .05 **p < .01

다른 반응이 후속할 확율이 우연확율보다 높고 낮은 정도를 나타낸다. 예컨대 '상담자 의견제시'가 선행반응이고 '내담자 동의'가 후속반응이라할 때, 카파가 통계적으로 유의(有意)하면서 +1에 가까우면 내담자는 상담자의 '의견제시' 다음에 '동의'를 우연확율보다 아주(최대) 높은 확률로 한 것이고, 카파가 0이면 단지 우연확율 만큼만 한 것이고, 카파가 -1에 가까울수록 우연확율보다 아주 낮게(최소로) 한 것이다. 이 우연적 확율보다 크고 적음의 정도는 통계적 검증이 가능한데, 그 자세한 절차와 해석 방법에 관해서는 Wampold와 Margolin (1981)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단, 카파의 값이 -1.0 이면서 통계적으로는 의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런 연계가 전

혀/거의 발생하지 않았을때 주로 발생한다.

연구자가 설정한 또하나의 예언은 협력관계에서 '유대'가 높은 사례에서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많고, '유대'가 낮은 사례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상호작용이 많으리라는 것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채택된 방법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 긍정적 반응을 교환하는 즉 positive reciprocity 연계(예: 상담자의 격려에 뒤이은 내담자의 긴장이완 반응)와 상호 부정적 반응을 교환하는 즉 negative reciprocity 연계(예: 상담자의 반대하기 반응에 뒤이은 내담자의 긴장 반응)를 분석하는 것이다. 표 5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한 '유대'가 높은 두 사례(두 사례 모두 상담자와 내담자가 중복함)와 낮은 세 사례(한 사례는 중복함)를 비교한 것이다.

표 5. 상담자와 내담자의 '유대' 점수를 기준으로한 긍정적, 부정적 상호작용 연계의 카파값

	응답자	상 위					하 위							
		상담자/내담자		상담자/내담자			내담자			상담자/내담자			내담자	
	연계패턴	사례7		사례2			사례9			사례4			사례16	
	회기	1	2	1	2	3	1	2	3	1	2	3	1	3
긍정적상호작용	상SO:내SO	.	.38**49**	.	.	-1.0	.	.
	상SO:내TR	.	.31**	-1.0	.40**	.32**	-1.0	-1.0	-1.0	.19**	-1.0	-1.0	.	.
	상SO:내AG	.05	.19**	.11	.36**	-1.0	-.15**	.08	-1.0	-1.0	-1.0	-1.0	.10	-1.0
	내AG:상SO	-1.0	.31**	-1.0	1.0	-1.0	.15**	.08	-1.0	-1.0	-1.0	-1.0	-1.0	.23*
부정적상호작용	상DA:내TE	.	.	.	-1.0	-1.0	-1.0	.	-1.0	-1.0	-1.0	.39**	-.04	-.09
	상TE:내DA	-1.0	-1.0	-1.0	.	.	-1.0	.47**	-1.0	-1.0
	내DA:상TE	-1.0	-1.0	-1.0	.	.	-1.0	.47**	-1.0	.48
	내TE:상DA	.	.	.	-1.0	-1.0	1.0**	.	-1.0	1.0**	.24**	-1.0	-1.0	-1.0

SO(Solidarity):격려 TR(Tention Release):긴장이완 AG(Agree):동의 DA(Disagree):동의하지 않음 TE(Tension):긴장표시

* p < .05 ** p < .01

상담자와 내담자 공히 '유대' 점수가 높은 두 사례에서는 부정적 상호작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일어났어도 부정적 반응에 또다시 부정적 반응이 후속하는 연계가 생길 확률이 아주 적게 나타났다. 반면에 긍정적 상호작용을 보면, 유대가 높은 사례에서는 상대방의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후속하는 연계패턴이 의의있게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매회기마다는 아니어도 여러 회기에서 나타났다.

'유대' 점수가 낮은 사례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 패턴이 적게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 상호작용의 패턴이 여러 회기에서 나타났다. 세 사례 중 두 사례에서는 부정적 상호작용 패턴이 보였는데 나머지 한 사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점은 이 결과의 일반화를 제한시킨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얻어진 자료는 연구자의 예언을 상당한 정도로 지지한다는 것이다. 첫째, 상담자의 조언, 행동지시, 해석, 의견제시, 정보제공 등에 대해서 내담자가 동의와 수긍을 많이 할수록 상담자와 내담자는 협력관계의 '목표합의'나 '과제동의' 척도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단, '목표합의'와 '과제동의' 점수가 낮다고해서 그런 연계패턴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된다는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 둘째, 상담자와 내담자 간 긍정적 상호작용 패턴이 많을수록 높은 '유대' 점수를, 부정적 상호작용 패턴이 많을수록 낮은 '유대' 점수를 부여했다. 상담자와 내담자 중 어느 하나가 긍정적 반응을 했을 때 이에 뒤이어서 긍정적 반응을 후속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강할수록 협력관계의 '유대' 척도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상담자나 내담자 중 어느 하나가 부정적 반응을 했을 때 이에 뒤이어서 부정적 반응을 후속하는 부정적 상호작용이

강할수록 협력관계의 '유대' 척도에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발견되었다. 그것은 내담자의 '의견제시' 반응에 상담자의 '동의'가 후속하는 연계이다. 이 연계가 패턴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오직 협력관계(과제동의 + 목표합의)가 낮은 경우 뿐이다. 이런 결과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지배적인 경향에 순종하는 것은 치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다. 내담자가 '의견제시' 즉, 평가, 분석, 해석, 추론을 하고 상담자가 이에 대해서 동조하고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내담자가 상담자보다 힘의 면에서 우위에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아마도 상담자나 내담자나 모두 이런 내담자 힘 우위의 패턴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상-내 간 힘관계에 대해서는 후속하는 두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연구 III (김동민, 1993)

김동민의 연구는 본질적으로 김선경(1992)의 연구와 같은 변형된 ex post facto 방법론을 취하였다. 상담 협력관계가 높은 사례와 낮은 사례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 즉, 高협력관계 사례와 低협력관계사례 간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이나 상호작용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것이다. 김동민의 연구는 또한 Reandeanu와 Wampold(1991)의 연구를 반복연구(replicate)한 것이다. 이들은 Penman(1980)의 언어반응 유목체계를 사용하여 협력관계가 높은 사례와 낮은 사례를 비교해 보았는데, 김동민은 이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몇가지 보완하여 재연구해 보았다. Penman의 분류체계에는 '힘'(power)이라는 개념의 차원과 '몰

힘 (power)	고	공격 agress	조언 advise	지지 support
		불일치 disagree	정보교환 exchange	동의 agree
	저	회피 avoid	요구 request	순응 oblige
		부정적		긍정적
		몰입 (involvement)		

그림 1. 명시적 수준의 유목명칭과 상대적 위치

힘 (power)	고	거부 reject	통제 control	주도 initiate	공유 share
		반대 counter	저항 resist	제의 offer	협력 collaborate
		회피 evade	유보 abstain	요구 seek	순종 oblige
	저	철폐 remove	단념 relinquish	복종 submit	매달림 cling
		부정적		긍정적	
		몰입 (involvement)			

그림 2. 잠재적 수준의 유목과 상대적 위치

입' (involvement: 김동민은 이것을 '관여'라고 번역했다)라는 개념의 두 차원이 있다 (그림 1, 2).

먼저 Reandeu와 Wampold 연구의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대학상담소에서 실행된 상담 14사례중에서 高협력관계 2사례, 低협력관계 2사례를 선정했다. 상담자는 5-11년의 경력자들이었고, 각 내담자들은 5회기의 시간제한(time-limited) 상담을 받았다. 각 사례는 녹음된 후 축어록으로 풀어졌고, 그것을 토대로 Penman 분류체계로 코딩되었다. 분석은 각 언어반응의 기본율과 반응간의 연계

패턴에 대해서 가해졌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관계의 고저는 내담자의 '몰입' 수준과는 관계가 있으나 상담자의 '몰입' 수준과는 관련이 없었다. 둘째, '힘'의 차원에서는 협력관계의 고저와 관계없이 상담자가 내담자보다 높은 '힘'의 반응을 보였다. 셋째, 고협력관계 사례는 높은 힘의 상담자 반응에 대해서 낮은 힘/높은 몰입의 내담자 반응이 이어지는 여러 패턴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저협력관계 사례에서는 상담자의 높은 힘 반응 뒤에 내담자의 회피적 반응이 이어지는 연계패턴이 나타났다.

그런데, 김동민은 Reandeu와 Wampold의 연구는 고-저 협력관계 사례의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다시말해서 저협력관계 사례의 점수가 그다지 낮지않다는 것이다. 7점 리커트식 척도(7이 高)에서 고협력관계 사례의 평균점은 6.2, 저협력관계 사례의 평균점은 5.2로서 '고-저' 간의 차이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저' 협력관계 사례의 점수는 여전히 '高'로서 충분히 '低' 협력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동민은 훈련중인 초보상담자들의 사례(17례)를 수집하여 그 중 WAI점수가 높은 3사례와 낮은 3사례를 선정하였다. 고협력관계 사례들의 평균점은 5점 척도에서 3.23, 저협력관계 사례들의 평균점은 2.69로써 저협력관계 사례들의 점수가 많이 낮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 협력관계사례들의 점수가 충분히 높지 못하다는 문제가 남게되었다.

Reandeu와 Wampold는 고저 두사례씩을 분석했는데 김동민은 고저 세사례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김선경의 연구에서도 고-저 두 사례씩을 분석하였다. 이점은 김동민의 연구가 '외적타당도' 면에서 더 강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필자가 보기에 고-저 사례간의 차이를 대조해 보는 설계에서는 적어도 각 세사례씩은 비교해 보아야 각 집단의 경향성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사료된다.

Reandeau와 Wampold(1991) 그리고 김동민(1993)은 상담 협력관계를 정의함에 있어서 상담자의 WAI점수와 내담자의 WAI점수를 합한 점수로 정하였다. 이점이 김선경(1992)의 정의와 다른 점이다. 김선경은 상담자의 점수, 내담자의 점수를 구분해서 분석한 후, 상+내 점수합을 분석하였는데 비해서 Reandeau와 Wampold(1991) 그리고 김동민(1993)은 (상+내) 점수합만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연구자는 '상담자의 힘 지수'를 산출했다. 상담자의 힘지수는 한 회기 내에서 상담자의 높은 힘 반응에 뒤이어 내담자의 낮은 힘 반응이 이어지는 연계에 관한 지수이다. 즉, {상담자의 높은 힘--내담자 낮은 힘}의 연계 수를 그 회기 내 상담자 높은 힘 반응의 수로 나눈 값을 '상담자 힘 지수'라고 정의하였다 (공식 1).

(공식 1)

$$\frac{\{\text{상담자 높은 힘 반응} - \text{내담자 낮은 힘 반응}\} \text{의 연계}}{\text{상담자 높은 힘 반응의 수}} = \text{상담자 '힘' 지수}$$

이 지수는 상담자가 높은 힘의 반응(예: 조언, 지지)을 한데 대해서 내담자가 그보다 낮은 힘 반응(예: 순응, 동의)을 한 정도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그런 연계가 일어난 빈도로 나타내지 않고 상담자의 높은 힘 반응수로 나누어 비율로 나타내면 회기간, 사례간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 상담자 힘 지수는 명시적 분류체계든지 잠재적 분류체계든지 고협력관계 사례들이 저협력관계 사례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 이 결과는 아주 일관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표 6).

연구자는 '힘' 뿐만 아니라 '물두(관여)' 차원에서 고협력관계 사례와 저협력관계 사례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표 6. 상담자 '힘' 지수의 고저 협력관계 사례 간 비교

	회 기	저협력관계 사례			고협력관계 사례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명 시 적	1	.29	.13	-.13	.42	.24	.42
	2	.17	.24	.	.44	.39	.42
	3	.25	.25	.28	.62	.38	.
	평균	.24	.21	.21	.49	.34	.42
잠 재 적	1	.44	.19	.41	.56	.47	.64
	2	.29	.34	.	.51	.52	.43
	3	.36	.17	.29	.54	.47	.
	평균	.36	.23	.35	.54	.49	.54

후자가 전자에 비해서 더 몰두적이었는가, 덜 몰두적이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상담자의 중립적 반응에 뒤이어 내담자가 높은 몰두 반응을 하였다면 후자가 전자보다 더 몰두적인 것으로 정의한 것이다. 표 7은 명시적 차원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 몰두 수준을 비교한 것이고, 표 8은 잠재적 차원에서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대체적 분석을 해보면, 고협력관계 사례와

저협력관계 사례 간에 몰두적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상담자의 몰두반응에 내담자도 뒤이어 몰두반응을 하는 연계는 저협력관계 사례보다 고협력관계 사례에서 월등히 더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상담자의 몰두반응에 뒤이어 내담자가 비몰두 반응을 하는 연계는 고협력관계 사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저협력관계 사례에서는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는 명시적 차원에

표 7. 명시적 수준의 몰입반응 연계비율

회 기	저협력관계 사례												고협력관계 사례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1	2	3	평균	1	2	3	평균	1	3	평균	1	2	3	평균	1	2	3	평균	1	2	평균		
111-211	.32	.26	.30	.29	.29	.07	.00	.12	.29	.38	.34	.53	.41	.49	.48	.45	.43	.33	.40	.68	.50	.59		
111-213	.09	.03	.17	.10	.00	.00	.13	.04	.06	.05	.06	.03	.00	.00	.01	.00	.00	.08	.03	.03	.03	.03		
112-211	.32	.26	.22	.27	.05	.18	.19	.14	.16	.13	.15	.32	.28	.26	.29	.17	.20	.25	.21	.25	.34	.30		
112-213	.16	.32	.31	.26	.19	.12	.07	.13	.09	.12	.11	.01	.03	.03	.02	.00	.04	.08	.04	.00	.06	.03		

참조 1:상담자 2:내담자 I1:높은 몰두반응 I2:중립적 몰두반응 I3:낮은 몰두반응

표 8. 잠재적 수준의 몰두반응 연계비율

회 기	저협력관계 사례												고협력관계 사례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1	2	3	평균	1	2	3	평균	1	3	평균	1	2	3	평균	1	2	3	평균	1	2	평균		
111-211	.24	.10	.16	.17	.00	.27	.00	.09	.24	.21	.23	.22	.36	.27	.28	.00	.31	.00	.10	.43	.15	.29		
111-213	.04	.03	.11	.06	.33	.00	.00	.11	.18	.07	.1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12-211	.22	.16	.13	.17	.05	.05	.02	.04	.12	.12	.12	.25	.20	.20	.22	.15	.19	.12	.15	.20	.16	.18		
112-213	.15	.23	.22	.20	.09	.04	.05	.06	.06	.17	.12	.03	.02	.03	.03	.03	.01	.07	.04	.01	.06	.04		

참조 1:상담자 2:내담자 I1:높은 몰두반응 I2:중립적 몰두반응 I3:낮은 몰두반응

표 9. 명시적 수준의 회기별 연계분석 결과(Kappa)

	저협력관계 사례								고협력관계 사례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1	2	3	1	2	3	1	3	1	2	3	1	2	3	1	2
1AD-2CD	.47**	.34	.54**	ns	.83**	.70**	.12	.31**	.30**	.37**	.34**	.28**	.26**	.47**	.43**	.30**
2CD-1AD	.54**	.20	.26	ns	.41**	.54**	.23*	.25**	.32**	.30**	.31**	.004	.37**	.34*	.12	.10
1AD-2AG	.39**	.27*	.20	.50**	.86**	.89**	.41**	.25	.47**	.47**	.43**	.39**	.28*	.28	.66**	.31**
1AD-2EX	-.16	.04	.11	.23**	-.22	.10	-.19	-.34	.11	.15	.17*	-.35	.10	.04	-.29	0
2EX-1AD	.24**	.40**	.35**	.38**	.49**	.33**	.28	.38**	.15*	.20*	.27**	.65**	.05	.48**	.47*	.19**
1AD-2AV	.39	.78**	.57**	.31	.21	.70*	.27	.36**	-1.0	-1.0	.11	ns	1.0**	-1.0	-1.0	.09
2AV-1AD	.09	.56*	.42*	.31	.02	.39	.37	.04	-1.0	-1.0	.11	ns	-1.0	-1.0	-1.0	.009
1AD-2DS	.63**	.94**	.69**	1.0**	.73**	.59**	.69**	.72**	-1.0	.22**	ns	ns	-1.0	.40	ns	-1.0
1CD-2EX	.45**	.70**	.22*	.63	.93**	1.0*	.48	10	.72**	1.0	.62**	1.0*	.75**	1.0**	1.0	1.0*
2EX-1CD	.37**	.32*	-.19	1.0**	.22	1.0*	.48	1.0	-1.0	-.45	-.03	1.0*	.63**	.63	-1.0	1.0*

* p<.05 ** p<.01 1:상담자, 2:내담자

AD: 조언(ADVISE) SP: 지지(SUPPORT) EX: 정보교환(EXCHANGE)

AG: 동의(AGREE) DS: 불일치(DISAGREE) AV: 회피(AVOID) CD: 순용(CONCEDE)

표 10. 잠재적 수준의 회기별 연계분석 결과(Kappa)

	저협력관계 사례								고협력관계 사례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1	2	3	1	2	3	1	3	1	2	3	1	2	3	1	2
1IN-2CB	.59**	1.0*	.42	ns	-1.0	ns	-1.0	1.0	ns	-1.0	ns	.82**	1.0*	ns	.56**	ns
1IN-2OB	.49**	.46**	.61**	ns	.52**	ns	.48**	.49**	.74**	.79**	.66**	.86**	.71**	1.0**	.53**	.67**
2OB-1IN	.43**	.46**	.32**	ns	.22**	.28	.33**	.02	.49**	.35**	.50**	-1.0	.27**	.03	.21**	.10
1OB-2OF	.56**	.73**	.32*	.46	.71**	ns	.35	.55*	.11	.42	.25	1.0*	.27	.22	.22	1.0*
2OF-1OB	.41**	.53**	.32**	.46	.71	ns	.84**	.48	.41	1.0**	1.0**	ns	.71**	ns	.22	1.0*
1IN-2AB	.51**	.37	.54**	.30**	.33	.35**	.44**	.61**	.14	.16	.38*	.27	ns	.19	-1.0	.39
2AB-1IN	.51*	1.0**	.07	.43**	.20*	ns	.16	.34*	-.25	-1.0	-1.0	.26	ns	.60	-1.0	.39
1IN-2RS	1.0**	.72**	.49*	-1.0	ns	-1.0	.44**	.31*	ns	ns	ns	ns	ns	ns	ns	ns
1SK-2OF	.90**	1.0**	.96**	.90**	.92**	.90**	.90**	.76*	.83**	.85**	.81**	ns	ns	ns	.92**	.92**

* p<.05 ** p<.01 1:상담자, 2:내담자

SH: 공유(SHARE) CB: 협력(COLLABORATE) OB: 순종(OBLIGE) IN: 주도(INITIATE)

OF: 제의(OFFER) SK: 요구(SEEK) RE: 저항(RESIST) AB: 유보(ABSTAIN)

서 뿐만 아니라 잠재적 차원에서도 같게 나타났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힘관계, 몰두수준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수는 선행연구 즉 Reandeu와 Wampold(1992)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참신한 아이디어이다. 특히 '상담자 힘 지수'는 상담자-내담자 간의 힘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 다른 연구자들이 재 사용해 볼만한 지수로 사료된다.

연구자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반응 간의 연계적인 관계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선행연구와 같이 Wampold와 Margolin(1982)의 연계 분석방법으로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카파지수로 표시된다. 표 9는 명시적 차원에서 상담자 반응과 내담자 반응 간의 연계적 관계를 분석한 것인데, 고협력관계 사례와 저협력관계 사례 간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표 10은 잠재적 차원에서 상담자 반응과 내담자 반응 간의 연계적 관계를 분석하여 저, 고 협력관계 사례들간의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표들을 보면, 상담자의 조언에 대해서 내담자가 수긍하거나 동의하는 연계는 협력관계가 높은 사례나 낮은 사례나 간에 차이없이 강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또한 내담자의 수긍반응 다음에 상담자의 조언이 이어지는 연계도 강한 패턴을 나타내었으며 이것도 협력관계의 고저 간에 차이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상담자의 조언에 대해서 내담자가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연계, 그리고 내담자의 회피에도 불구하고 상담자가 조언을 하는 연계는 협력관계의 고저 간에 확실한 차이가 보였다. 협력관계가 낮은 사례에서는 상담자 조언에 뒤이어 내담자가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연계가 패턴화되어 나타난 반면에 고협력관계 사례에서는 그런 연계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 내담자의 회피반응에 뒤이어 상담자가

조언을 하는 연계도 마찬가지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협력관계 고저의 지각은 바람직한 상호작용에 의해서는 변별되지 아니하고 그대신에 바람직하지 않은 연계의 유무에 따라서 변별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논의부분에서 재술될 것이다.

연구 VI (김지은, 1994)

김지은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보적 상호작용이 상담관계나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그녀는 기존의 연구들이 상보적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코딩 시스템들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문제점이란 대부분의 코딩 시스템들이 상담자에게는 지배적이고 높은 힘의 유목을 부여하는 반면에 내담자에게는 낮은 힘의 유목을 분류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배에 관련된 유목들은 화제주도, 질문, 지지, 조언 등 주로 상담자에게서 발견되는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종에 관련된 유목들은 화제추종, 대담, 동의, 협조 등 주로 내담자에게서 발견되는 행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코딩 시스템으로 상담자-내담자 상호작용을 부호화하는 경우 상담자에게 일방적인 통제를 부여하는 편파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은 Reandeu와 Wampold(1991)의 논의에서도 볼수 있는데 그들은 그런 문제점이 적은 '사회행동구조분석' 즉 SASB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 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김지은은 바로 이 SASB를 사용하여 상-내 간 상호작용 특징이 상-내 협력관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림 3은 SASB의 유목 분류체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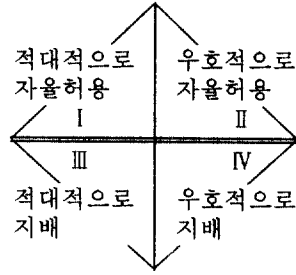
초점:상대방(Focus on Other)

O8 무시하고 돌봐주지 않음

O7 공격하고 거부함

O6 경시하고 꾸짖음

O1 자유롭게하고 잊어버림



O2 긍정해 주고 이해해 줌

O3 가르쳐주고 경려함

O4 도와주고 보호해 줌

O5 지켜보고 조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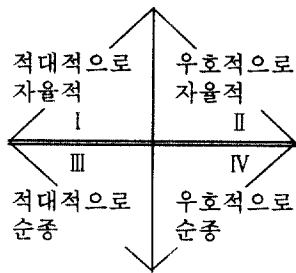
초점:자기(Focus on Self)

S8 담을 쌓고 피함

S7 항의하고 물러남

S6 토라지며 양보하기

S1 주장하고 독립적임



S2 털어놓고 표현함

S3 가까이하며 즐거워함

S4 신뢰하고 의지함

S5 양보하고 순종함

그림 3. 사회행동구조분석(SASB)

김선경(1992)과 김동민(1993)이 협력관계가 높은 사례와 낮은 극단적 사례를 대비시키는 설계를 사용한데 비해서 김지은(1994)은 단순 상관 설계를 적용하였다. 그녀는 10개의 사례에서 각각 초기 3회기씩을 녹음하고 3회기 직후에 WAI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김지은은 상보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보적 관계는 단순히 지배-순종의 관계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다. SASB의 유목들을 이용해서 보면 지배-순종, 자율허용-자율적임, 우호-우호, 적대-적대와 같은 상호작용들은 상보적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한다. 반면에 지배-자율적임, 자율허용-순종, 우호-적대와 같은 상호작용들은 비상보적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한다.

표 11은 '통제차원' 즉 '힘'의 차원으로 묶은 상보적/비상보적 연계패턴과 협력관계 간의 상관을 제시한 것이다. 예컨대, 상담자가 '높은 자율허용 반응' (High Giving Autonomy:HG)을 한데 뒤이어서 내담자가 '높은 자율적임 반응' (High Being Separate:HS)을 하는 것(상HG-내HS)은 상보적인 연계패턴이다. 반면에 상담자가 '높은 지배반응' (High Dominance:HD)을 한데 뒤이어서 내담자가 '높은 자율적임 반

표 11. 통제차원에서 묶은 유목들의 연계패턴 Kappa 값과 협력관계와의 상관

연계패턴	평균 Kappa	내 담 자				상 담 자			
		목 표	과 제	유 대	합	목 표	과 제	유 대	합
상HG-내HS	.976(n=30)	.391*	.327*	.331*	.383*	-.068	-.069	.022	-.049
상HG-내HC	-.746(n=8)	-.260	-.022	-.226	-.192	.046	.131	-.098	.044
상HD-내HS	.096(n=16)	-.450*	-.572**	-.311	-.510*	-.064	-.122	.206	-.029
상HD-내HC	.956(n=13)	-.216	-.128	-.106	-.165	.179	.155	.146	.176

괄호안의 n수는 분석에 포함된 회기수 임

* p<.05 ** p<.01

HD(High Dominance: 높은 지배반응) = 04 + 05 + 06

HG(High Giving Autonomy: 높은 자율적임 허용반응) = 01 + 02 + 08

HS(High Being Seperate: 높은 자율적임 반응) = S1 + S2 + S8

HC(High Compliance: 높은 순종반응) = S4 + S5 + S6

01: 자유롭게하고 잊어버림

02: 긍정해주고 이해해 줌

04: 도와주고 보호해 줌

05: 지켜보고 조종함

06: 경시하고 꾸짖음

08: 무시하고 돌봐주지 않음

S1: 주장하고 독립적임

S2: 털어놓고 표현함

S4: 신뢰하고 의지함

S5: 양보하고 순종함

S6: 토라지고 양보함

S8: 답을 쌓고 피함

표 12. 친애차원에서 묶은 유목들의 연계패턴 Kappa 값과 협력관계와의 상관

연계패턴	평균 Kappa	내 담 자				상 담 자			
		목 표	과 제	유 대	합	목 표	과 제	유 대	합
상FI-내FC	.916(n=30)	.515*	.429**	.486**	.519**	.163	.290	.282	.265
상FI-내HC	-.720(n=8)	-.511	-.036	.136	-.228	.107	.073	-.093	.032
상HI-내FC	.087(n=12)	-.321	-.454	-.507	-.493	-.216	-.226	-.053	-.202
상HI-내HC	1.000(n=6)

괄호안의 n수는 분석에 포함된 회기수 임

* p<.05 ** p<.01

FI(Friendly Influence: 우호적 영향반응) = 02 + 03 + 04

HI(Hostile Influence: 적대적 영향반응) = 06 + 07 + 08

FC(Friendly Compliance: 우호적 순응반응) = S2 + S3 + S4

HC(Hostile Compliance: 적대적 순응반응) = S6 + S7 + S8

02: 긍정해주고 이해해 줌

03: 가르쳐 주고 격려함

04: 도와주고 보호해 줌

06: 경시하고 꾸짖음

07: 공격하고 거부함

08: 무시하고 돌봐주지 않음

S2: 털어놓고 표현함

S3: 가까이하며 즐거워함

S4: 신뢰하고 의지함

S6: 토라지며 양보함

S7: 항의하며 물러남

S8: 답을 쌓고 피함

을'을 한다면(상HD-내HS) 이는 비상보적인 연계패턴이다. 분석결과, 상HG-내HS(상보적)

역시 내담자가 응답한 WAI와 부적 상관성이 있었다.

연계패턴은 내담자가 응답한 WAI와 정적 상관성이 있었고, 상HD-내HS(비상보적) 연계패턴은

표 12는 친애차원에서 묶은 유목들의 상보적/비상보적 연계패턴과 상담 협력관계와의 관계

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친애차원의 상보적 연계패턴이란 상담자가 우호적인 영향반응(Friendly Influence:FI)을 한데 뒤이어서 내담자는 우호적인 순응반응(Friendly Compliance:FC)을 한 것(상FI-내FC), 상담자가 적대적인 영향반응(Hostile Influence:HI)을 한데 뒤이어서 내담자도 적대적인 반응(Hostile Compliance:HC)을 한 것(상HI-내HC)이다. 그리고 친애차원의 비상보적 관계란 상담자는 친애반응을 한데 뒤이어서 내담자는 적대적 반응을 한 것(상FI-내HC)과 상담자는 적대적 반응을 한데 뒤이어서 내담자는 친애반응을 한 것(상HI-내FC)을 일컫는다. 즉, 상담자와 내담자가 같은 정서 반응을 교환하는 나눈의 관계를 상보적 관계로 보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상반되는 정서반응을 교환하는 경우 비상보적인 것으로 보았다.

분석결과, 상보적 연계 패턴 중 상담자가 우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응을 한데 뒤이어서 내담자가 우호적으로 따르는 반응을 한 연계(상FI-내FC)가 내담자의 WAI 점수와 정적인 상관관이 있었다. 반면에 비상보적 연계패턴들은 협력관계와 유의미한 상관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김지은은 상-내 간의 상보적/비상보적 상호작용과 회기평가(SEQ로 측정된)와의 관계도 분석했으나 본논문의 주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제시하지 않는다.)

종합논의

일관(一貫)적 발견

전술한 것처럼, 여기에 분석된 네 연구는 동일한 패러다임의 주제를 탐구하였다. 그 동일한 주제란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시간 내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였는지에 따라 그들이 지각하

는 협조관계의 고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예언을 분석하는 것이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방법으로는 모두들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시간 중에 행한 언어 즉 말을 정해진 코딩시스템을 이용해서 유목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단, 네개의 연구가 각기 다른 유목분류체계를 사용하였다.

발생시간으로 볼 때 상호작용은 상담시간 중에 발생했고, 협력관계의 측정은 3회기 혹은 4회기 종료 후에 실시되었다. 그런 면에서 상호작용(상담과정)이 협력관계의 선행조건 즉 둘간의 인과관계를 상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이러이러한 상호작용은 이러이러한 협력관계지각의 원인조건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해석을 함에 있어서 대단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네 연구가 모두 인과적 해석을 하기에는 미흡한 설계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네개 중 두개의 연구는 단순상관설계를 사용했고, 두개는 협력관계의 高低 사례간을 대비시키는 변형된 ex post facto 설계를 적용했다. 두가지 설계가 모두 인과적 해석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단, 상담과정 연구가 인과적 해석이 가능한 실험설계를 채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할 때 이런 종류의 상관설계나 사후분석 설계의 채택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보아야한다.

논리상 '협력관계'는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는 이론적 견해를 취할 수 있다. 이 이론적 모델이 타당하다면 상관설계나 사후 분석 설계 연구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와야한다. 물론 실험설계를 할 수 있다면 이를 먼저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험설계가 불가하다면 차선택의 설계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단, 이 차선택의 방법에 의해서라도 여러 연구들이 일관성 있는 결과를 생산해야만 신빙성있는 해석을 내

릴 수 있는 것이다.

네 연구에서 우리는 크게 두가지 차원의 일관성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우호적이고 몰입적인 상호작용 패턴이 그들의 협력관계 지각과 깊이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김선경(1992), 김동민(1993), 김지은(1994)의 세 연구에서 강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선경(1992)이 사용한 Bales의 유목들, 김동민(1993)이 사용한 Penman의 유목들, 그리고 김지은(1994)이 사용한 SASB유목들은 우호적이고 상담몰입적인 반응을 분류할 수 있다. 동시에 적대적이고 비몰입적인 반응도 분류할 수가 있다. 연구결과들을 보면, 협력관계가 높은 사례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우호적이며 몰입적인 상호작용을 했으며, 협력관계가 낮은 사례에서는 비우호적이고 비몰입적인 상호작용을 했음이 일관성 있게 관찰된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어떻게해서 생기는가? 즉, 우호적, 몰입적 상호작용 때문에 협조관계가 올라가는 것인가, 적대적, 비몰입적 상호작용 때문에 협조관계가 내려가는 것인가? 혹은 두가지 모두 작용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김선경(1992)과 김동민(1993)의 자료는 부분적인 대답을 제공한다. 이 두 연구에 의하면 우호적, 몰입적 상호작용이 협력관계를 올려준다기 보다는 적대적, 비몰입적 상호작용이 협력관계를 낮춘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우호적, 몰입적 상호작용은 고협력관계 사례와 마찬가지로 저협력관계 사례에서도 나타났는데 비해서, 적대적, 비몰입적 상호작용은 고협력관계 사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저협력관계 사례에서 다수 나타났다는 관찰에 근거한다. 이 가설은 후속되는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 봄직하다.

둘째는 '힘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김동민(1993)과 김지은(1994)의 연구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발생하는 힘의 관계에 직접 관심이 있었다. 김동민이 사용한 Penman체계와 김지은이 사용한 SASB는 모두 '힘'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김선경(1992)은 '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분석한 상-내 상호작용에는 선행반응자의 '의견제시'에 대해서 '동의'가 후속하는 연계가 주로 포함되어 있었다. '동의' 반응은 김동민이 사용한 유목체계와 김지은이 사용한 유목체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의견제시'나 '조언'과 같은 반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힘'을 가진 반응으로 여겨진다.

결과는 일관성이 있었다. 협력관계가 높다고 지각되는 사례에서는 공통적으로 상담자가 내담자보다 강한 '힘'으로 이끌고 내담자는 약한 '힘'의 반응으로 순응하는 패턴이 나타났다(상보적 힘관계). 반면에 내담자가 상담자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례에서는('역' 상보적 힘관계) 협력관계가 낮게 지각되고 있었다. 혹은, 상담자의 강한 힘 반응에 뒤이어서 내담자도 강한 힘 반응으로 대처하는 패턴(대칭적 힘관계)을 보인 사례에서는 협력관계가 낮게 지각되었다.

같은 주제를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연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측정의 타당성(구인 타당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런 다양한 측정이 더욱 필요하다. 이와같이 다른 도구로 측정을 하였는데도 일관성있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연구자들이 예언한 명제가 '올다'라는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그 지지기반을 든든히 해준다. 일관된 발견을 정리하면, (1)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 우호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상담에 더 몰두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상담 협력관계를 높게 지각하며, 상담자와 내담자가 적대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고 상담에 몰두하지 못했을 때는 상담 협력관계를 낮게 지각한다. (2)상담자는 강한 힘의 반응으로 이끌고 내담자는 상대적으로 약한 힘의 반응을 했을때는 상담 협력관계를 높게 지각하며, 상담자보다 내담자의 힘이 더 강하거나 혹은 내담자도 상담자의 힘에 버금가는 같은 힘으로 대처했을 때에는 상담 협력관계를 낮게 지각한다.

방법론적 논의

(1) 빈도연구와 연계분석

방기연의 연구는 김선경, 김동민, 김지은의 세 연구에 비해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방기연은 연계분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빈도' 접근법, 다시 말해서 상담자가 한 반응의 빈도와 협력관계 간의 상관을 구했다. 그 결과 몇가지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자료를 얻었으나 그것이 상담실제에 주는 시사는 연계분석 결과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상담자 반응의 타이밍을 시사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계분석은 내담자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상담자가 어떻게 반응할 때, 상담자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내담자가 어떻게 반응할 때 '좋은' 결과를 얻는지에 대해서 시사를 준다. 혹은 반대로 어떤 상호작용 패턴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시사를 준다. 바로 이점이 연계분석의 강점이다(Wampold & Kim, 1989). 방기연의 빈도접근법에 비해서 후속하는 세 연구자는 한단계 발전된 방법론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외적 타당도

네 개의 연구가 모두 대학생 내담자와의 상담사례를 표집하였다. 그것도 모두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의 상담사례였다. 이점은 두가지 측면에서 '일반화'의 쟁점을 제기한다.

첫째는 일반화의 범위가 '좁다'는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이 네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상담 특히 서울대 내에서의 대학생 상담에 국한된다. 서울대 내의 학생상담은 타 대학에서의 학생상담과 어떻게 다를까? 서울대 내담자들의 특수한 특징은 없는가? 아니면 서울대 학생 내담자나 타대 학생 내담자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담자가 서울대 학생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다. 상담자도 마찬가지이다. 표집된 모든 상담자가 서울대 대학원(교육학과,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에서 수업하고 학생생활연구소에서 근무하거나 실습하는 상담자들이다. 상담의 경력도 비교적 적은 초보나 중급의 상담자들이다. 이들은 공동으로 수업을 받는 적이 많고 같은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기도 하고,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사례발표회에 참여한다.

둘째는 일반화의 범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일반화의 범위가 '좁다'는 말과 의미가 다르다. 일반화의 범위가 단지 '넓다'는 것만으로 일반화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일반화의 범위를 명확히 아는 것이 단지 그 범위를 모르는채 넓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일반화의 범위를 명확히 모른다는 것은 그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말이나 같다. 따라서 이 네 연구는 비록 일반화의 범위가 좁기는 하지만 그 범위를 명확히 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3) 협력관계 측정의 문제

이 네 연구는 Horvath와 Greenberg가 제작한 WAI를 번안해서 사용했다. 방기연이 이들의 1989년도 논문에서 실린 내담자용 질문지를

토대로 내담자용 WAI를 제작했다. 그후 김선경은 방기연의 번안을 소폭 수정했으며, 또한 내담자용 질문지를 토대로 상담자용을 제작했다. 김동민과 김지은은 김선경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여기에 몇가지 문제점이나 논의점이 있다.

첫째는 상담자용 WAI의 원본이 내담자용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그런데 김선경은 내담자용 문항을 토대로 상담자용 질문지를 만들었다. 그 결과, 원본과 14개 문항(36개 중에서)이 차이가 났다(강혜영, 1995; 이호준, 사적대화). 이점은 앞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아마도 원본에 충실한 새로운 번안을 하여 김선경이 제작한 상담자용과의 차이를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도 새로운 번안판과 구번안판과의 상호상관 정도는 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WAI 원본에서는 7점 리커트식 척도를 적용하며 1-7점 일곱개의 척도마다 모두 뜻을 달았다. 그러나 한국판에서는 5점 리커트식 척도를 적용했으며, 양쪽 극단 점수에만 뜻을 달았다('전혀 아니다'와 '그렇다'). 방기연과 김선경이 왜 5점척도를 적용했는지는 그들의 논문에서 이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이와같이 7점과 5점의 차이, 그리고 뜻을 각 숫자에마다 달았느냐 아니냐가 어떤 차이를 야기시켰을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셋째는 어느 연구도 '관찰자'의 측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담연구방법론자들은 측정에서 내담자의 관점, 상담자의 관점, 그리고 관찰자의 관점을 다양하게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여기서 검토된 네 연구는 한결같이 내담자의 관점과, 상담자의 관점을 사용했을뿐 관찰자의 관점은 적용하지 않았다. 만약에 전문가 관찰자 혹은 비전문가 관찰자의 눈을 통해 협력

관계를 측정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끝으로, 협력관계의 요인구조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남는다. 사실 이 문제는 WAI의 원저자인 Horvath와 Greenberg(1986, 1989)가 제시한 타당도 자료에서도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 의문점을 간단히 진술하면 이렇다-- '유대(Bond)', '목표합의', '과제동의'는 상호 독립적인 요인인가 아니면 중복이 심한 요인인가? 김선경은 '유대'와 '목표합의+과제동의'로 두 요인으로 나누어서 결과를 분석했다. 상담자나 내담자의 '동의'가 후속하는 연계패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동민은 세 요인을 구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WAI 점수와 내담자의 WAI 점수를 합해서 하나의 점수로 사용했다. Reandeanu와 Wampold(1991)의 선행연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김지은은 '유대' '목표' '과제' 세 요인을 별도로 분석하고 세 요인의 '합계' 점수도 적용했다. 여전히 세요인의 합계점수가 '협력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구인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현상은 '협력관계'에 대한 개념적 혼란을 야기시킨다. 개념적으로는 '유대'에 대한 지각과 과제 및 목표의 '동의'에 대한 지각이 차이가 난다. 그러나 측정된 실자료에서는 이들 하위척도간 상호상관이 아주 높은 것이다(Horvath & Greenberg, 1989). 그러기 때문에 어떤 연구에서는 각 요인을 구분해서 분석하고 어떤 연구에서는 요인들을 합친 점수를 사용한다. 이들이 모두 '협력관계'의 측정치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런 측정상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는 상담 협력관계를 주제로한 연구가 발전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 강혜영(1995). 상담자 경력에 따른 상담 협력 관계의 차이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동민(1993). 상담 초기 작업 동맹 형성에 관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 상호작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선경(1992). 상담자-내담자 초기 협조 관계의 지각과 언어 상호작용 유형과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은(1994). 초기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적 상호성과 작업 동맹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방기연(1992). 상담 초기 작업동맹과 상담자 반응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경자(1993). 상담자의 경험과 상담 초기 작업동맹 및 상담회기의 효율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ordin, E.S.(1979). The generalizability of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the working allianc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6, 252-260.
- Hartley, D.E., & Strupp, H.H.(1983). The therapeutic alliance: Its relationship to outcome in brief psychotherapy. In M.Masing(ED), *Empirical studies of psychoanalytic theories*. Hillsdale, NJ: Analytic Press.
- Heppner, P.P., Kivlighan, D.M., & Wampold, B.E.(1992). *Research design in counseling*. Brooks/Cole press.
- Horvath, A.O., & Greenberg, L.S.(1986). The Development of the WAI. In L.S. Greenberg, & W.M. Pinsof(Eds.), *The psychotherapeutic research process : A research handbook* (pp.529-556). New York: Guilford Press.
- Horvath, A.O., & Greenberg, L.S.(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AI.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23-233.
- Klee, M.R., Abeles, N., & Muller, R.T.(1990). Therapeutic alliance: early indications, course, and outcome. *Psychotherapy*, 27, 166-173.
- Kokotovics, A.M., & Tracey, T.J.(1990). Working alliance in the early phase of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16-21.
- Reandean, S.G., & Wampold, B.E.(1991). Relationship of power and involvement to working alliance: A multiple-case sequential analysis of brief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07-114.
- Wampold, B.E., & Kim, K.H.(1989). Sequential analysis applied to counseling process and outcome: A case study revisite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357-364.
- Wampold, B.E., & Margolin, G.(1982). Nonparametric strategies to test the independence of behavioral states in sequential data. *Psychological Bulletin*, 92, 755-765.

Client-Counselor Interaction and Working Alliance: A Review of Four Studies

Kay-Hy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s have studied how working alliance is established between client and counselor. Working alliance is generally defined as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client and counselor working for mutually agreed goal(s).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paper is to review the four Korean studies (Bang(1991), Kim S-K(1992), Kim D-M(1993), and Kim J-E(1994)) in which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counseling process and working alliance and to find any consistent results in the four studies. Two kinds of consistent results were found. First, involvement of client and counselor in the counseling process is highly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working alliance. More detailed analysis suggests that working alliance is deteriorated by negative interactions with low involvement of client and counselor rather than it is raised by positive interactions with high involvement. Second, power relationship between client and counselor is also related to working alliance. The working alliance is perceived high when the counselor leads the counseling process with higher power and the client complies with lower power. However, working alliance is perceived low when the client's power is higher than or equal to the counselor's. The second finding supports the classical hypothesis that the power-compensation between counselor and client, one-up counselor and one-down client, leads to successful counseling or psychotherapy.